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신학박사 조 덕운

[이사야 42:5]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로마서 6:23]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는 모두 선물 받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생일이 되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선물 받기를 기대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니까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커다란 선물들을 선물로 여기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자연적 선물들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되는 영생을 알지도 아니하고 그 커다란 선물 받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에 관하여 알아보고 우리가 당연히 감사드려야 함을 배우게 되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의 대언자 이사야께서 설파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천체들, 즉 우리의 낮을 비추는 태양과 밤을 비추는 달과 수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입증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는 우리 인간의 모든 특성에 가장 적절한 조건들을 갖추어 사람들과 피조물들이 숨쉬고 생존할 뿐 아니라 성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이루는 일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피조물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을 이 세상의 지도자들로 세우시고, 택한 백성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정보 통신의 놀라운 발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지식이 크게 증대되었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참 지식은 하나님과 그 분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며, 이 영생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2:21]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을 저주하셨지만, 이는 땅이 잡초와 엉겅퀴가 나오도록 함으로써 농사 일을 힘들게 만드는 제한적인 저주이었습니다. 이 땅에 비를 주시고 작물이 성장하도록 하신 농업의 기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에게 순종함을 조건으로 제 때에 비를 주시기로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36:25]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 40 년을 통하여 무상으로 먹을 만나를 하늘로부터 선물로 주셨는데, 이는 거져 후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간에서 무상으로 주시는 생명의 빵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갈급하고 주린 사람들에게 참 만족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32-35]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33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34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3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신약의 때가 되어 하늘로서 참 만나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더 훌륭한 선물이 무엇인지 인간들에게 알려 주셨고, 자신이 스스로 그 선물이 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대속양이 되어 죽으심으로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큰 선물이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얻게 되는 영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감사함이 사라졌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신대륙에 와서 나라를 세운 청교도의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대륙의 엄청난 자원을 향유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미국 건국의 선조들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한 훌륭한 헌법을 채택하고 이를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극좌파 세력들은 이 헌법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주신 모든 귀한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를 버렸습니다.

모든 크리스챤들은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와 권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연적, 지적, 영적 선물들에 대하여 매일 감사하며, 특히 훌륭한 영적 선물을 더욱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31]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야고보서 1:5]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사람들의 간절히 원하는 바를 기꺼이, 풍성하게 주시는 너그러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는 간구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시어 훌륭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중재자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간절한 소망으로 더 큰 믿음, 세상을 보는 통찰력, 사랑하고 용서하는 관대한 마음,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와 인내심을 풍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www.douglaschoministry.net

후원에 감사합니다:
PO Box 501, Cross Junction, VA 22615
Or Paypal to dwcho4771@gmail.com
한국: Shinhan Bank 110-008-655930 [조덕운]